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이웃돕기
성금품기탁 이어져

고창군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수확의 나눔을 함께하려는 아름다운 동행의 이웃돕기 성금품이 이어지고 있다. (주)골프존카운티선운(대표 서상현)과 (재)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에서 지난 25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고창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골프존문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골프존 이웃사랑 행복나눔'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 신립면 이등안씨(대한헌친협회 고창군지부장)가 백미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전달했다.

공음면 오영중씨(공음화토틀문화재단)도 지난 8월 고창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매 수익금 100만원을 고창군에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소중한 분들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뜻깊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보건소-군 의사회
청렴협력체 회의 실시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28일 부안군 의사회 오경호 원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청렴협력체 회의'를 실시했다.

보건소와 부안군 의사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된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청렴?부패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부안군민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경호 원장님이 생각하는 부안군의 주요 건강문제 및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의견을 듣고,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 보건사업, 정확히 알려야”

정읍시 보건소,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설명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읍시보건소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언론인 정례브리핑은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날 브리핑은 순회경 보건소장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순회경 보건소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이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3개 과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와 결로,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13억

400만 원을 투입해 공공건축물 내·외벽 단열과 창호공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추진하는 'A-toA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김영범 대응 및 예방사업', 그리고 건강생활과 소관으로 '자살 예방사업'과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순회경 소장은 "보건 환경 시설 개선과 효과적인 보건사업 전개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바로잡습니다

본보 8월 31일자 '부안 부단체장'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31일자 8면 <부안 부단체장, 보건소장 직대 직무 관련 월권행위로 '과장' > 제하의 기사에서 부안군 부단체장이 보건소 소장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근무평정과 직원 근무지 배치에 관여했으며, 폭언과 업무상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안군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소장이며 확인자는 부군수가

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해 평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안군 부군수가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위 기사에 대해 김중택 전 부안군 부군수는 보건소 인사 및 근무평정과 관련해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고창 배 수출 · 유통에 최선을”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배 선별기 가동'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최근 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는 배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설치한 선별기를 본격 가동 중이며, 12월 초까지 가동하여 총 600톤에 이르는 물량을 선별 출하할 계획이다.

고창배영농조합 대표는 “고창군의 지속적인 배 농가를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창 배 수출 및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고창항로배기유통에서 운영하는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부지 3만7483㎡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8002㎡로 2006년에 건립됐다. 저온저장시설,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유통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고창군은 노후화된 유통센터 개보수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 및 선정되어 사업비 총 40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유통시설 장비를 들여오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식 개최

11월 1일부터 임시 운영

부안군은 27일 전북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식에 관여한 부안군수, 도의원, 군의회, 부안군체육회, 부안군장애인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의 자리를 갖고 오는 11월 1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반다비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의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안 반다비체육센터는 부안을 봉덕리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119억원(국비47, 군비72)을 들여 연면적 3,419㎡, 지하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 실내체육관, 수중운동실, 헬스장, GYM, 탁구장, 탁의실, 샤워실과 2층에 당구장 장애인단체사무실 8개소, 휴게실, 회의실 등 장애인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안군에는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없어 일반체육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직접적으로 추진한 반다비체육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군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타당성 용역 착수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인구감소에 대응해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읍역 광장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발전계획을 수립해 내장산과 용산호, 문화광장 등으로 유입되는 방문객을 시내 지역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조합으로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한은 물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으로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

적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지난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용역기관과 도시재생·환경 분야 전문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과업 수행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 일정, 방법,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지역주민과 공무원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치유농업 통한 소방관 힐링 지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24시간 출동대기 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고위험 직무군인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각종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으며, 23.3%는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방관들은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식물의 색이나 향에 의한 감성 변화를 체험했다. 특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근무환경 속에서 뒷밭을 조성하고, 반려식물 만들기를 체험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전정기 소장은 "치유농업은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으로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영농체험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